

동강대 “글로벌 다문화 인재 양성 선도”

‘글로벌 비전’ 선포식·‘제1회 K-컬처 페스티벌’ 개최 15개국 31개팀 ‘K-POP·K-한글’ 콘테스트 등 경연

동강대학교가 ‘글로벌 다문화 인재 양성 선도 대학’의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간다. 30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본관 5층 나이트클럽에서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제1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강대는 앞으로 ‘K-컬처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동강대는 ‘Global Life, DU it Great 2030’ 글로벌 비전과 5대 전략을 공개했다. GREAT는 ▲G(Global:세계성+지역성) 광주의 모습을 세계에 담은 글로벌 대학 ▲R(Respect:문화 존중) 다름의 문화를 이해하는 존중 대학 ▲E(Exemplary:모범) 공존과 상생의 교육실천 모범 대학 ▲A(Acceptance:수용) 다양성의 수용과 포용의 긍정 대학 ▲T(Together:함께) 품격 높은 무한 가치를 실현하는 다 함께 가는 대학의 뜻을 담았다.

이민숙 총장의 글로벌 비전 선포 선언문 낭독에 이어 글로벌 다문화교육 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후 ‘K-컬처 페스티벌’ 경연이

펼쳐졌다. ‘K-컬처 페스티벌’은 예심을 거쳐 선발된 15개국 31개 팀이 ▲테마가 있는 ‘K-POP 콘테스트’ ▲주제가 있는 ‘K-한글 콘테스트’ 등의 무대를 선보였다. K-POP 콘테스트는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베트남(3팀) ▲

몽골(3팀) ▲중국(2팀) ▲네팔 ▲인도 ▲필리핀 ▲대한민국(5팀) 등이 참가해 지정곡과 자유곡으로 실력을 뽐냈고 기타 연주, 합창, 가야금 연주 등의 장기자랑도 선보였다.

또 K-한글 콘테스트는 ▲카자흐스탄 ▲베트남(5팀) ▲나이지리아(2팀) ▲필리핀 ▲우크라이나 ▲중국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인들이 참가해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발표했다.

‘K-한글’ 대상은 키르기스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양국의 문화 차이점을 애기한 마리코바 아이즈렉(여·20)씨가 받았다.

‘K-POP’은 한국자녀와 중국이민 자녀 20명이 함께 한 한·중연합합창단이 차지했다.

이민숙 동강대 총장은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K-컬처페스티벌을 발판으로 동강대가 추구해 온 교육의 가치와 본질에 글로벌 다문화라는 변화와 혁신을 담아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가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제1회 K-컬처 페스티벌’이 지난 29일 동강대 본관에서 열려 가예예수단원들이 한복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 /김애리가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22 해질 19:51
🌙 달돋이 01:14 달짐 15:13

인천	22/27	서울	22/30	대전	22/31	강릉	23/30	춘천	20/31
전주	23/31	광주	23/32	대구	22/25	부산	22/27	제주	22/26
목포	23/28	광주	23/31	대전	22/31	강릉	23/30	춘천	20/31
흑산도	20/26	제주	24/28	여수	22/26	부산	22/27	광주	23/31
목포	23/28	광주	23/31	대전	22/31	강릉	23/30	춘천	20/31
흑산도	20/26	제주	24/28	여수	22/26	부산	22/27	광주	23/31

광주	구름비	23/31
목포	구름비	23/28
여수	구름비	22/26
나주	구름비	22/31
완도	구름비	22/28
구례	구름비	22/31
강진	구름비	23/29
해남	구름비	22/28
장성	흐림	22/31
보성	구름비	21/28
순천	구름비	22/30
영광	흐림	22/30
진도	구름비	22/27
흑산도	구름비	20/26
고흥	구름비	22/29

● 생활정보지수
☔️ 너들이 30 🚗 빨래 30 🚰 세차 20 🏃 운동 50
우산 챙기세요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우비 챙기세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2.0
	면바다(북)	1.5-3.0
	면바다(남)	1.5-3.0
남해 서부	앞바다	1.5-2.5
	면바다(동)	1.5-3.0
	면바다(서)	1.5-3.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9:33	02:37
	22:31	15:09
여수	04:33	10:54
	17:37	23:39
녹동	05:14	11:56
	18:21	---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7월 2일(화)	☁️(24/28)	☁️(24/28)	☁️(21/25)	☁️(23/27)	☁️(24/30)
3일(수)	☁️(24/30)	☁️(22/27)	☁️(20/27)	☁️(24/32)	☁️(25/30)
4일(목)	☁️(23/29)	☁️(22/29)	☁️(23/30)	☁️(24/31)	☁️(24/30)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올수능 11월14일... ‘의대 N수생’ 난이도 변수

평가원 “킬러문항 배제하고 EBS 연계 제감도 높일 것”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주로 치르게 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4일 시행된다.

출제 당국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대 증원에 따른 ‘N수생’ 확대가 난이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0일 공고했다.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감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N수생이 얼마나 가세할지, N수생의 증가가 난이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해보다 1천5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의대 열풍’이 더 거세져 입시업계에서는 N수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학력 수준이 고3 재학생보다 더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물수능’을 피하기 위해 평가원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크다.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는 평가원의 방침에도 실제 제감 난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이 유지된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해 출제된다. /연합뉴스

연계를 자체는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변경은 시험지구별로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를 응시할 경우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11월18~22일 신청을 받아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수험생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연합뉴스

동구 동명동 자투리땅 ‘정원’ 탈바꿈

녹지 한평 늘리기 정비사업 일환... ‘친환경 녹색도시’ 목표

광주 동구는 “최근 2024년 녹지 한평 늘리기 정비사업 일환으로 동명동 207-70번지 등 2개소에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해 수목 가지치기 등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생활 뒷밭 인근의 방치된 곳으로 그동안 환경 정비가 필요하고, 노후 시설물 개선과 사계절 꽃이 피는 수목 식재 등 주민들의 환경 정비가 절실히 요구돼 왔던 곳이다.

이에 동구는 문그로우 등 14종 244주, 맥문동 등 초화류 8종 2천120본을 식재했으며, 매너블릭 화단 1개소, 경관조

명 11개 등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동구는 향후 동네 생활권 주변 방치된 공간에 특색 있는 조경을 연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도시와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정비 사업을 통해 마련된 녹지 공간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누구나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교동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05시 ~ 14시
- 휴무일 : 둘째, 넷째 일요일

여수 교동시장 풍물거리

여수 교동시장 입구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문의 : 062)650-2099